

# 우공(牛公)이 만든 기적,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기고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에다 해당 지역의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을 지원하는 '관계 인구'를 넓혀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담양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만 6832건에 23억200만 원 상당을 모금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1위와 전남도 1위를 차지했다. 담양의 인구와 경제력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인구 4만 명대의 담양군이 2년 연속 20억 원 이상 모금이라는 성공을 거둔 것은 출향 담양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노력,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이뤄낸 결실이다. 특히 타 시·도에 거주하는 출향 향우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며 담양과 전남을 알리고 있는 이들은 고향을 떠났음에도 변치 않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향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며

담양에 큰 감동을 안겨줬다.

담양군 공직자들은 지난해 우공(牛公)처럼 뛰었다. 지역소멸을 막아내려는 간절한 마음까지 더해져 고향사랑기부를 알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광주와 서울, 국회와 중앙정부를 오가며 관련 문제도 풀어갔다. 이런 노력에 출향 향우들이 움직였다. 담양군의 1만6832건 모금 하나하나에는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눈물, 담양군민의 지지와 향우의 정성이 담겨있다.

지난 1년 고향사랑기부금은 많은 의미를 남겼다. 먼저,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다. 인구 소멸을 막는 일은 담양군민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담양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담양군민에게 닿았다.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우공들은 자신의 유지를 받들 자식과 손자가 대대손손 필요할터다. 그런 마음이 통한 것일까. 전국 곳곳에 같은 뜻의 후원자가 이어지면서 담양군은 기쁨의 활력이 넘쳤다.

담양군이 시행 첫해 모금된 기부금 22억4000만 원 중 2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추진한 3가지 기금사업을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통합돌봄',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문화예술 경험과 소양 향상을 위한 악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담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담양 소상공인을 위해 상점가 야간경관 전기료 및 상가 주도로

거리 행사를 지원하는 '담양읍 상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다.

추진된 기금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군민의 87%가 '만족한다'고 답하며 기금사업이 '담양형 향촌복지' 실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기존 운영 사업의 사업비와 사업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어르신 병원동행 사업은 관내 이동에 한정된 병원 동행에서 관외(광주 권역)까지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청소년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과 '향촌공동급식센터 운영'이라는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모금된 기부금에 비해 턱없이 작은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담양군은 기부금 운용을 더욱 신중히 할 생각이라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매년 늘어나는 모금액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부자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인 기부금이 얼마나 군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굳은 각오를 다져본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담양이 활기차고 살맛 나는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양을 위해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社說

### 철저히 환수해야 할 전두환 미납추징금

“추징 통해 역사적 단죄해야”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은 전 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부인 이순자 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자택이 사실상 전 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소멸됐다. 검찰의 환수 노력이 3년 만에 물거품 된 셈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정부가 이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체가 전두환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고,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 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26억 6000만 원 상당)을 전 씨로 이전해 달라는 소

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해당 자택은 1969년 이 씨가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고, 1979년 12·12 당시 군사 반란 모의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환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소송 각하에 가장 허탈감이 큰 건 광주시민들일 것이다. 오월단체와 지역정기는 “특별법 등으로 역사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범죄수의 환수 규제법이라는 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특별법 등 시행으로 전 씨에게 내려진 추징이 꼭 완결돼야 할 것이다.

현재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추징률은 60.7%(1338억원)에 그쳤다. 우리는 과거 친일과 군사반란으로 권력과 부를 획득한 세력에 대한 완전히 단죄하지 못했다. 그 후손들까지 기득권을 누리게 한 결과, 2024년 겨울 또다시 ‘군사반란’을 경험한 현실과 마주했다.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를 통해 그릇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 모두의 관심 필요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 이익

전남도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전국 1위를 목표로 인증면적 확대에 나섰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농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비료와 농약, 농자재 등을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식품 국가 인증제도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인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지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가 저탄소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한 것은 오는 2030년까지 3000여만 톤인 농·식품분야 탄소배출량을 8.3% 감축하기 위해서다. 농가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의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법도 단순하다. 시설원예의 경우다검보온 커튼을 설치하면 보온력이 높아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농가는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수와 발작물 또한 퇴비나 액비를 직접 만들거나 초생재배를 통해 비용절감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선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도 19개에 달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올라가면서 2024년을 기록상 가장 더운 해로 확정했다.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이다.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생태계 보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 전체의 과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해택도 크다. 정부는 환경부 그린카드와 연계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9%를 예코머니 포인트로 적립한다.

탄소배출량은 산업계가 가장 크지만 농업도 무시할 수 없다. 지역 농가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환경과 지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저탄소 농산물 인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 극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모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를 위한 의지가 우리의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간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이 다음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 없다”라고 밝혔다.

AP/뉴시스

### 서석대

“불타는 태양의 계절에는// 사람이 지치고 개도 지치고 소나무도 시든다 // 그러나 빼꾸기는 울기 시작하고 호도애와 오색방울새의 노래가 들린다. // 산들바람은 상쾌하게 불지만//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다쳐 // 소나기를 내리게 하여 목동을 당황케 한다. // 공포와 불안에 목동은 지치고 // 번개는 달리고 뇌성은 울리며 // 파리와 말벌이 때를 지어 미친 듯이 난다.”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역작인 ‘사계(四季) 중 ‘여름’의 소네트(Sonnet·작은 시)다.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됐다. 평온하고 느린 선율이 이어지다가, 번개와 천둥의 위협적인 소리가 갑자기 나타나며 긴장감을 더한다. 목동의 평화로운 휴식이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로 방해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름은 흔히들 열정의 계절로 꼽힌다. 여름은 온대 지방의 사계절 중 하나로, 하계(夏季), 하기(夏期), 하절(夏節), 여름철이라고도 하며, 여름날은 하일(夏日)이라고 한다. 여름에는 일광시간 절약을 위해서 고위도 위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서머 타임제를 실시하며, 바캉스, 북(伏)날 등이 여름을 대표한다. 절기로는 입하(5월 5일 경)에서 입추(8월 7일 경)까지를 말한다. 여름이라는 단어는 ‘너름’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과거에는 여름과 농사를 모두 뜻했다. 여름은 1년 중 농사 일로 가장 바쁜 계절이다. 많은 열매들이 열리는 계절을 의미한다. 여름이 찬란했던 이유는 추위와 배고픔을 넘기고 찾아오는 풍요가 있었기에 더위를 견딜만 했다. 하지만 여름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과거 여름철은 9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해 구하(九夏)라고 불렀다. 2025년 여름은 ‘8개월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학자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썬 여름을 넘어 여름같은 봄·가을을 경험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아직 세계적인 기후 전망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 여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끔찍한 여름이 오고 있다. 이전 한반도가 자랑하는 사계(四季)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봄과 가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단의 추위와 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전 걱정을 넘어 공포가 될 것이다. 이전 행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큰 희생을 치를 건지 한 계절에 쏠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계(四季)’를 후손에 물려줄지 이전 결단이 필요할 때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